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김형옥 단장(강남성모 피부과)

과묵한 나에게 본 사업의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봉사활동에 임하게 된 것에 개인적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꼈지만 참으로 보람과 영광의 시간이었다. 걱정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 제 역할에 기대를 훨씬 넘어 초과 수행한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열악한 장비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희생을 마다 않던 단원들 한분 한분의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몽골 주민들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얼굴을 보면서 과거 30~40년 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절대 부족한 물자와 문화 현실을 보면서 비록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협회의 해외의료지원 사업은 금년의 사업을 시발로 타의 모범이 되는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의 협조와 단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

김영훈 부단장(의정부성모 소아과)

몽골 아이들의 비타민 부족은 심각하였다. 특히 구루병이 많아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몽골의 많은 소아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기생충 감염률이 높다. 마실 물을 얻으려고 먼 곳에서 식수를 길러오며 이것조차 불가능할 때에는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식수관리와 기생충 예방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절실한 문제이다. 영양제와 기생충 약을 많이 가져가기는 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몽골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순박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겠다.



한치동 교수(대구가톨릭 산부인과)

협회사업으로는 처음 경험해본 진료봉사사업에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것이 열악한 상태에서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린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한다.

- ① 유니폼/신발/모자
- ② 플래카드(건물/차량/숙소/ 안내인)

- ③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보완
- ④ 가정 방문, 지역봉사 강화
- ⑤ 통역인 보완
- ⑥ 몽골지역 신자 참여기회 유도

위의 사항을 보완한다면 더욱 발전된 협회 해외의료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사덕 교수(가톨릭약사회)

먼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껏 이렇게 좋은 체험은 처음이다. 출발할 때는 허리에 통증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신비롭게도 분주한 봉사활동 일상에서 통증이 깨끗이 나았다. 주님의 도움으로 걱정거리가 해소되어 마음이 활기분하고, 몽골에서의 하루하루는 매우 힘든 일정이었지만 몽골현지인의 순수한 눈망울과 미소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비록 뭔가를 베풀고자 봉사를 했지만 그들을 통해 배운 것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몽골에서 선교를 위해 몸을 던지시어 활동하시는 이준하 신부님과 수도원 수녀님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신앙심을 다시 한번 챙겨본다.

김영모 팀장(성모 정보지원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진료 봉사단원으로 몽골이라는 나라의 짧은 활동기간은 봉사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제한된 일정과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활동이 그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끊임 없이 봉사활동이 지속된다면 가톨릭의 향기가 그들에게도 채취로 남으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마치 과거로의 여행을 했던 것 같은 몽골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특히 아이들의 변함없는 천진무구한 웃음을 통하여 물질의 풍요와 정신적인 행복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봉사단원 참가 이전에는 모르고 지냈던 훌륭한 의료봉사단원들의 만남과 활동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문환 신부(의정부성모 원목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다. 특히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과 미소가 그랬다. 비록 문화와 종교와 환경은 다르지만 함께했던 몽골인에게서 하느님 존재의 흔적을 분명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지만 아픈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 또한 어느 오랜 선교 활동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위안을 삼는다.

“선교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의 신념을 만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다.” 몽골의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 분들의 노고와 열성에 존경을 표한다. 또한 봉사단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좋은 기회를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환석 교수(성모 가정의학과)

주님의 섭리로 단장님을 비롯한 최상의 멤버가 모였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너무 많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몇몇 심한 환자에서는 아주 작은 나의 노력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였다.

지금껏 경험한 진료봉사활동 중 가장 소중히 기억될 것 같다. 이번 일정에 함께한 신부님, 수녀님, 술선수범하신 양, 김, 한, 박 교수님, 젊은 피 김은철 교수와 CMC 씨스터즈(최, 조, 이), 진료 내내 맺돌(유발 & 유봉)을 돌리신

원 교수님, 특히 한국에서 보다 맛있었던 육 여사님의 음식 솜씨, 온갖 궂은 일을 마다 않으신 김 팀장과 서영호 기자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조만간 아네스, 요한나라고 불릴 두 예비자 후보의 결실을 간절히 기대한다.

끝으로 향후 협회의 의료봉사가 수혜자 위주로 거듭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박성환 교수(대구가톨릭 외과)

현대 의학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몽골 시골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몽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몽골인들에게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또한 몽골의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에 수도자들과 이를 돕는 협력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의료지원 사업이 이분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몽골지역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은철 교수(강남성모 안과)

출발 전에는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들떴었다. 그러나 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 진행 중에 약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몽골사람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내가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 간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9월 초순이었지만 새벽 내 내리는 함박눈이 몽골전통 가옥인 게르를 덮을 때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추위를 뻗속 깊이 경험했다. 게르의 장작난로는 활활 타오를 때는 따뜻하지만 15분이 지나면 다 타버리고 한 시간이 지나면 불씨가 없어져 버려 자다가 일어나서 꺼져 버린 불씨를 되살리려고 한 시간 이상을 난로에 입김을 불어넣을 때가 많았다.

그렇게 고생스러울 때는 한국이 그리기도 했으나, 마지막 날 그 지역의 면장이 주최해준 파티에 나왔던 양고기 맛은

여기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하였다. 그리고 몽골에서의 갖가지 보람과 추억은 보드카 만큼이나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것이다.

유인자 수녀(강남성모 간호부)

짧은 기간이지만 도처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만나 뵈 기회가 되어 감사드린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평균 수명은 6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지만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엿볼 수 있었다.

몽골에 다녀온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순수함과 소박함이 나를 순수하게 살도록 독려하는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물로 받아 왔다는 생각에 감사롭다. 어디에서나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 뵈옵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의료협회에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황보신이 수녀(강남성모 약제팀)

약사로서 수도자로서 참 은혜로운 경험을 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며 그들의 맑고 순수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느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단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봉사 당시보다 지금 돌아볼 때 하느님의 함께하심과 그 감사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봉사가 맥을 이어 지속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약제 준비 등 필요한 일에 성심껏 돕고자 한다.

최혜란 간호사(강남성모 간호부)

참가단원으로 선정되고 나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선발대로 선정되어 사전준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임무를 지시받아 더욱 그랬다. 그러나 동행한 좋은 분들과 보람되고 추억



어린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특히 야간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 처리하는 과정과 산부인과 환자들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과묵한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협회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현숙 간호사(성빈센트 중환자실)

처음으로 가보는 해외의료봉사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다. 낯선 분들과 낯선 곳에서의 8박9일, 몽골에서의 생활은 잊지 못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혈압과 체중 체크, 몇 안 되는 채혈 외에는 도울 것이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것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그곳 사람들의 소박함과 친절함에 감사한다.

또한 빠듯한 일정에도 지칠 줄 모르는 단원 여러분의 열정에 놀랐다. 감히 나로서는 의료봉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회를 얻은 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하며 좋

은 분들과 보람 있는 일을 한 것에 감사할 뿐이다. 비종교인임을 아쉬워하며.....

이지은 약사(강남성모 약제팀)

몽골 해외봉사를 가는 것이 떠나기 한 달 전에 결정된 나는 약간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로 출국을 했다. 하지만 함께 했던 분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모든 일에 협조적이어서 너무 기분 좋게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은 첫 경험이라, 국내에서의 봉사활동과는 다를 거라고 예상은 했다.

예상대로 몽골 현지인들의 건강 상태나 필요한 약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으며 이번 진료 및 문화 행사를 토대로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발전된 좋은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달 이상이 지나간 지금에도 몽골 현지인들의 정겨운 얼굴들이 눈에 선하다. 그곳에서의 활동이 제 삶에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었지만 좋은 분들과 좋은 일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육희수 봉사자(성당 자원봉사자)

경험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중요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조리담당) 많은 걱정을 했지만 협조자들을 구해주셨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사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들을 도와주고자 그곳에 갔지만 되레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진정 감사드린다.

윤학식(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

이번 몽골 해외의료지원 사업은 그간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협회차원의 새로운 문화행사의 시도이자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었다. 단장님을 비롯하여 총무를 맡은 본인까지 처음 경험하는 행사였다. 그러나 그런 우려와는 달리 모든 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잘 어우러진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 ① 준비의 치밀성(협조)
- ② 단원공모의 흥행
- ③ 사업추진의 성황
- ④ 현지인의 반응
- ⑤ 사업비 절감(협찬 유도)
- ⑥ 문화행사의 적중성
- ⑦ 단원의 만족도 및 보람
- ⑧ 적극적인 홍보활동
- ⑨ 현지인 복음화의 시도 등

제3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국내 외의 로기관의 해외의료지원 사업은 인류애 및 복음화 실천의 필



수적인 사업영역이 되고 있다.

사업과정을 통해서 연계 되는 것은 현지인에게 의료혜택을 베푸는 보람 외에도 봉사자가 체득하는 신앙심과 사랑, 겸손과 극기심 등의 산교육의 기회제공, 홍보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모르긴 해도 이번 참가자 모두의 경험은 일생일대의 신선한 사건이 되었으리라 감히 짐작해 본다.

향후 협회는 해외의료지원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 동참 유도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사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철저한 사전답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 ② 문화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화시키고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봉사활동(어린이/학생/성인을 위한 교육/문화행사)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③ 의료지원사업 추진방향은 예방차원-지속적인 사업화-진료소화 방향으로 추진한다.
- ④ 현지 한국인과의 연계, 국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한다.
- ⑤ 회원 및 독지가의 기부문화 정착화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회 회장님을 포함한 임원 분들과 단원 여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